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일·가정·여가 균형 맞추는 '시간제 개혁'

**사회·복지** 민간 교육·홍보 적극 지원해 양성평등 실현  
소수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하고 역량 강화  
식사모임 지원·대화 장려로 도시민 소외개선  
"여성은 하늘의 절반" 양성평등 고용문화 추구

**환경·안전** 극심한 대기오염 대처 '청정대기 2030' 로드맵  
시·시민·사업자 연계 폐트병 순환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저소득층 지원 결합 '냉장고 보너스'

**도시계획·주택** '청년·노인' 저소득층 '투트랙' 임대주택 보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 일·가정·여가 균형 맞추는 ‘시간제 개혁’

일상생활 시간대 2시간 앞당기고 활동별 권장시간대 설정

스페인 카탈루냐주 / 행정장·교육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산업화·독재 시대에 형성된 비효율적 노동시간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개혁’을 추진 중임. 식사·근무 등의 시간대를 2시간가량 앞당기고 활동에 맞는 권장시간대를 설정해 주민이 일·가정·여가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배경: 스페인의 시간사용 특성

- 스페인은 유럽 평균에 비해 노동시간이 늦게 끝나고 모든 일상생활이 지연
  - 유럽 평균시간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식사와 출퇴근 시간이 2시간씩 늦는 편
    - 상점들도 영업시간을 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2시간 더 늦게 영업을 마칩
    - 여가·오락활동도 밤 11~12시까지 이어져 수면부족이 발생하며, 교육·업무 활동에 부정적 영향
  - 학교의 총 교육시간은 유럽 평균과 비슷하지만, 공휴일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가족의 노동시간과 조율하기 어려움
  - 카탈루냐주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일 최대 9시간이 기준
    - 연장근로는 15일간 8시간이 기준이며, 연 80시간을 넘을 수 없음
    - 만 18세 미만이나 수유 중인 임산부는 야간근로 금지
    - 재택근무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5%(유럽 평균 17%)



[그림 1] 카탈루냐주와 유럽연합 주요 시간대 비교

- 비효율적 노동시간 형성의 배경
  - 1930~1970년대 프랑코 독재 시대의 발전지향주의와 최근 서비스업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
- 시간제 개혁의 필요성은 경제 위기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늦게 인식
  - 여러 유럽 국가는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비효율적 노동시간을 유연하고 합리적인 시간제로 개혁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
  - 하지만, 스페인은 경제 위기로 비효율적 노동시간의 문제점과 시간제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 주요 내용

- 주정부는 관련 기업과 공공·민간 단체 등과 ‘시간개혁 조약’(Pacto para la Reforma Horaria)을 체결
  - 목적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
    - 취약계층의 복지와 건강 보호, 직장·가정·개인 생활 간의 균형,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학업·업무의 효율 향상 등
  - ‘시간개혁 조약 실현을 위한 2025계획’을 수립해 참여기관의 목표 달성을 지원
  - 식사, 학업, 운동, 수면, 업무 등 활동별로 적합한 ‘권장시간대’를 설정하고 장려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

[표 1] 시간제 개혁 실현을 위한 분야별 계획

분야	목적	제안
생산	- 근무시간의 압축 - 유연한 근무시간 - 더 생산적인 조직 구성	- 분야·직급에 따른 단축·탄력근무제 도입 - 근로자가 권장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함 - 단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추진
공공서비스	- 단축된 스케줄의 일반화 - 전자정부의 강화와 합리화 - 공공행사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획 - 공무원의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	- 권장시간대 식사의 일반화 - 선출직·관리직 공무원의 일정에 시간제 개혁 반영 - 공공시설 업무 마감시간 준수 - 시민과 공공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시간 조절을 쉽게하는 ‘디지털사회를 위한 국가협약’ 준수 - 사회경제적 단체와 시민참여로 노동시간 개혁을 구체화
교육 (18세 미만)	- 학교 일정의 단축 - 교육시간대를 8~16시로 규정 (초·중·고등학교, 과외 교육)	- 카탈루냐주 교육서비스 의무시간과 전체 교육 권장시간대를 8~16시로 유지 - 점심시간 등 학교 시간 배분에 권장시간대 적용 - 저녁 이후 가족과의 시간,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과외활동 시간을 앞당김

분야	목적	제안
교육 (18세 이상)	- 대학 교육시간대를 8~19시로 규정	- 학사 과정생의 권장시간대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휴식시간 재분배 - 대학원의 야간 종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육의 질 향상 - 고등교육, 성인학교, 직업훈련소 등도 휴식시간 재분배
상업·소비	- 근무시간의 합리화(7~19:30) - 새로운 근무시간과 일치하는 쇼핑 습관 홍보 및 권장 - 다양화된 사회의 쇼핑 습관을 적용	- 사회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변하면, 상업분야의 근로시간도 19:30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유도 - 소비습관과 구매형태 변화에 따른 상업분야의 제안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상업분야 근무시간대를 적용
문화·여가	- 방송 주시청시간대를 20~23시로 규정 - 대중공연·여가활동 시간을 18시~2:30으로 설정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해당 시간대 적용 - 문화 여가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합리화하고, 자원봉사자·활동가가 병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	<b>시청각 분야</b> - 방송 주시청시간대를 20~23시로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업계에 적용 - 시민의 주요여가 활동인 텔레비전 시청의 주된 시간대를 현재의 21~24시보다 앞으로 당겨 수면·여가 시간 확보 - 프로그램 편성 시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고려
		<b>단체·연합 분야</b> - 효율성·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조직의 업무 과정을 개선 - 권장시간대의 식사를 일반화 - 시간제 개혁 촉진을 위한 노동협약을 제3분야의 현실에 적용하고, 단체 교섭을 위한 10가지 목표 수립
		<b>스포츠 분야</b> -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권장시간대 적용 - 어린이·청소년의 신체 활동을 20시까지 마치는 것을 일반화
		<b>문화·산업 분야</b> - 업종별 특성을 살피고, 시간사용(일정, 관습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 - 생산·산업 분야의 시간제 개혁이 문화·여가분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보건서비스	- 취침시간을 앞당김 - 부족한 수면 시간의 회복 - 근로자, 특히 여성의 스트레스 감소	- 보건서비스의 접근성·품질과 근로자의 건강을 모두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조화로운 시간제 개혁을 추진 -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E-서비스 등 근무시간 관리방법 구현
이동성	- 새로운 시간대를 적용하고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공교통정책 강화 - 통근 시간 줄이기	- 시간제 개혁에 필요한 새로운 교통 관련 요구를 이동성 분야의 계획·정책에 반영 - 시간제 개혁에 따른 새로운 러시아워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확보

#### ○ 시간제 개혁 실현을 위한 실행 방법

- 국가의 정책의제로 시간제 개혁을 추진
  - 개혁에 따른 문화적·구조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 관련 예산은 시간제개혁이 시민 복지수준 향상, 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
  - 주정부 산하에 특별임시기구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 분야별 계획의 변화·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비용 대비 편익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 구체적 전략을 준비
  - 시민 캠페인 진행, 공공·민간과 관련 조약 체결 등

#### ○ 현황

- 바르셀로나시는 2020년까지 도시의 기업 절반이 시간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
  - 시간제 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sup>1)</sup>에서 상담·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시간제 개혁의 혁신성고를 달성한 회사에 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시간 사용에 관한 국제 시간활용 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의 43번째 회의인 ‘2021년 국제 시간활용 회의’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할 예정

1) Barcelona Activa, 도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공기업(399호, 412호 참조)

<https://www.reformahoraria.cat/>

[http://treball.gencat.cat/es/ambits/igualtat/temps\\_treball/reforma\\_horaria/](http://treball.gencat.cat/es/ambits/igualtat/temps_treball/reforma_horaria/)

<https://web.gencat.cat/ca/actualitat/reportatges/reforma-horaria/>

[http://presidencia.gencat.cat/web/.content/ambits\\_actuacio/reforma\\_horaria/Pacte-reforma-horaria\\_ES.pdf](http://presidencia.gencat.cat/web/.content/ambits_actuacio/reforma_horaria/Pacte-reforma-horaria_ES.pdf)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90712/463426911902/barcelona-celebrara-la-conferencia-internacional-sobre-uso-del-tiempo-de-2021.html>

<https://www.elperiodico.com/es/barcelona/20190323/barcelona-aprieta-acelerador-para-conciliacion-laboral-pacto-tiempo-7367260>

[http://media.wix.com/ugd/801581\\_5131bee7695b445cb026547bead2c74d.pdf](http://media.wix.com/ugd/801581_5131bee7695b445cb026547bead2c74d.pdf)

<https://www.boe.es/buscar/pdf/1995/BOE-A-1995-7730-consolidado.pdf>

<https://www.reformahoraria.cat/reforma-horaria-govern-cat>

<https://www.reformahoraria.cat/les-24-hores-del-dia>

[http://media.wix.com/ugd/801581\\_1215c1d2e86b4f2a9ed206aa7a8bcac7.pdf](http://media.wix.com/ugd/801581_1215c1d2e86b4f2a9ed206aa7a8bcac7.pdf)

---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 민간 교육·홍보 적극 지원해 양성평등 실현

미국 시카고시 / 사회·복지

미국 시카고시는 양성평등과 소수자의 인권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특히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단체나 기업을 적극 지원해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영역이나 연극계 등 특수한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

### 배경과 현황

-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주는 미국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순위 중상위권 기록
  - 월렛허브에서 시행한 ‘2019년 여성을 위한 최고의 주’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18위로 중상위권을 기록
  - 하지만 전년 기록인 13위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시정부는 앞으로 궁극적 양성평등을 추구해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시카고시는 지난 5월 최초의 흑인여성이자 성소수자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Lori Lightfoot)을 맞이해 여성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양성평등을 추구
  - 10대 청소년, 불법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해 인종·문화·언어를 가리지 않고 시카고 시민이면 누구든 차별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상담기관 운영(※ 459호 참조)
  - 건강한 양성평등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풀뿌리 교육, 민간 기관 정책 사업 장려

### 주요 내용

- 시정부는 쉽게 해결이 어려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홍보 풀뿌리 활동을 하는 민간 그룹·기업 등을 적극 지지
  - 여성 종사자·이용자가 많은 미용업체와 협력해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교육을 미용자격증 갱신 시 필수 교육으로 설정하고, 가정폭력·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지난달 15일 일리노이주 글렌뷰에서는 한인 등 다른 인종 미용사 50여 명에게 이민자 여성의 권리·인권에 집중하는 관련 교육을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

-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교외 지역은 민간과 협업해 양성평등 추구
  -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교외 지역에는 민간 협회나 기업·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직장 내 성차별, 여성인권, 10대 양성평등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꾀함
    - 시정부는 해당 단체에 자유로운 교육 활동 보장과 지원, 관련 규제의 융통성 있는 적용과 세금우대 혜택 등을 제공해 양성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
  - 시카고시의 외곽 글렌데일 YWCA는 민간 기관으로 양성평등 교육 외에도 시민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
    - 1926년에 문을 연 글렌데일 YWCA는 100여 년간 여성주택 보급, 취업교육,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및 데이트폭력 방지 교육 등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
    -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직업 교육, 임시 거주지 제공,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주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적극 활약 중
- 시민의 관용과 이해를 부탁하고, 양성평등을 넘어 인간평등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
  - 시정부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페스티벌, 퍼레이드, 시 주관 행사에서 시각적인 포스터나 디자인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
    - 오랜 기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시카고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 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경찰차를 특별 제작해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1]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색으로 칠한 시카고 경찰차

- 공공기관과 시 전역에 영어·스페인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포스터를 게시해 차별금지의 메시지를 전달
  -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민자나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차별 금지 메시지를 알리며 일상생활 속의 편견을 없애는 정책 추구



##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

- 시정부의 양성평등 추구, 성소수자 인권 증진 공공정책은 각계각층에 나비효과
  - 연극계의 양성이 평등한 공연환경을 만드는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CTS: Chicago Theater Standard)가 미 전역으로 확산
    - 공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차별·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과 대처방안 등을 정리한 현장 백서로,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배우 로라 피셔와 로리 마이어스가 이끌어 온 민간 차원의 운동
    - 일반회사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연극계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시카고 극단대표, 예술가, 시 행정가까지 참여하여 2년간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작
    - 이런 운동을 바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미국 전역에 안전하고 양성이 평등한 공연 환경을 만들며 미국 전반의 시민 삶과 질을 높임
  - 시정부는 연극계 외에도 다양한 산업체와 기업, 민간단체와 긴밀하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나가려는 태도 유지
  - 시카고시는 여전히 풀어야 하는 양성평등 문제인 유리천장 개선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
    - 시카고 연방법원은 개장 200주년 되는 올해 처음 여성 법원장을 임명해 시에 남아 있는 여성 임금차별과 유리천장을 깰 것이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전달
    - 이 외에도 시정부의 중요 요직에 남성 위주 채용을 지양하고,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에 적용되는 유리천장을 개선하고자 함

<https://www.cfw.org/>

<https://www.msg.com/the-chicago-theatre>

<https://home.chicagopolice.org/>

<https://ywcachicago.org/>

<https://www.choosechicago.com/things-to-do/lgbtq-chicago/>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05/19/lori-lightfoot-becomes-first-black-female-openly-gay-chicago-mayor/3732428002/>

<https://news.chicagobooth.edu/newsroom/glass-ceiling-three-reasons-why-it-still-exists-and-hurting-economy>

<https://lightfootforchicago.com/>

# 소수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하고 역량 강화

인도 / 사회·복지

인도 정부는 오래된 계급제도인 카스트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 소수민이 교육·경제 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취·창업 능력 교육, 지역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중

## 배경

- 계급제도 카스트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던 소수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 시행 중
  - 소수민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고, 인도 내 인종·민족·문화·언어·종교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 2006년 인도 정부가 소수민자원부를 창설하고 총리 주도로 15개의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부터 시작
    - 인도 정부는 1992년 소수민 국가위원회법에서 소수민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조로아스터교(배화교)도라고 공식 규정
  - 소수민자원부의 임무는 소수민 공동체의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
    - 소수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해 소수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활발한 국가 건설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
    - 소수민 공동체에 생계 부양에 필요한 교육·고용·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

## 주요 내용

- 교육역량 강화
  - 소수민 초중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부모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
    - 고등기술학교나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유능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도 장학금을 제공
  - 이 외에도, 예비·정규 박사과정 학생, 해외유학생, 공공·민간의 직업교육기관 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소수민 교육 지원제도도 마련

### ○ 경제역량 강화

-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
  -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기술향상 프로그램 ‘시코 오르 까마오’<sup>1)</sup>, 최저빈곤한계선 아래의 17~35세 미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나이 만질’<sup>2)</sup> 프로그램 등
- 국립소수민개발금융공사 산하 무상신용공사가 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하는 소수민에게 무상 금융서비스를 제공

### ○ 소수민 지역 인프라 개발

- 소수민 공동체에게 더 나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

### ○ 소수민 내 다양한 그룹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제공

- 소수민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나이 로서니’<sup>3)</sup>
  - 소수민 공동체의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적 리더십을 높여 독립심을 키우기 위함
- 소수민 공동체의 풍부한 유산을 보존·개발하는 ‘하마리 다로하르’<sup>4)</sup> 프로젝트
  - 소수민의 문화유산을 인도 문화 중 하나로 인식하고, 보존·홍보·연구개발을 지원
- 이슬람 자선단체에 기부된 재산인 ‘와크프’<sup>5)</sup> 관리를 효율화해 자선단체의 재정적 지위를 개선
  - 전국에 산재한 와크프 자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록을 전산화하는 ‘도시 와크프 자산 발전 계획’ 시행

### ○ 소수민 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소수민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계획·평가를 담당

1) 힌디어로 ‘배우고 벌여라’는 의미

2) 힌디어로 ‘새로운 계층’이라는 의미

3) 힌디어로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

4) 힌디어로 ‘우리의 유산’이라는 의미

5) Waqf,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한 건물·토지·재산 등으로, 기부한 자산은 회수되지 않고 자선단체도 받은 자산을 양도할 수 없음

<http://www.minorityaffairs.gov.in/schemesperformance>

[https://web.archive.org/web/20100925015851/http://minorityaffairs.gov.in/newsite/main/FAQ\\_Ministry.pdf](https://web.archive.org/web/20100925015851/http://minorityaffairs.gov.in/newsite/main/FAQ_Ministry.pdf)

<http://www.theshillongtimes.com/2016/01/09/who-are-minorities-under-indian-law/>

[https://en.m.wikipedia.org/wiki/15\\_point\\_Programme\\_for\\_minorities](https://en.m.wikipedia.org/wiki/15_point_Programme_for_minorities)

[http://www.jiyoparsi.org/download/moma\\_guidelines.pdf](http://www.jiyoparsi.org/download/moma_guidelines.pdf)

<http://www.centralwaqfcouncil.gov.in/content/waqf-development-0>

<http://www.maef.nic.in/>

<http://www.nmdfc.org/index1.aspx?Isid=2&lev=1&lid=2&langid=1>

<http://haj.gov.in/media/Haj-Management.pdf>

# 식사모임 지원·대화 장려로 도시민 소외개선

캐나다 에드먼턴市 / 사회·복지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시민의 18%가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통계에 따라 도시민 소외개선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Hello, How are you?’라는 상위 캠페인 아래 지역주민 식사모임 지원, 대화상대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을 위한 벤치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는 중

## 개요

- 시민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지역사회 연결 캠페인 ‘Hello, How are you?’
  - ‘Hello, How are You?’라는 상위 캠페인 아래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시행
    - 도시민 소외와 정신건강 정보, 장년층의 소외·외로움 관련 정보제공, ‘Hello, Let’s Eat!’ 프로그램, ‘버디 벤치’(Buddy Bench) 설치, 자살방지 전략과 이행 계획 등
  - “이 캠페인의 초점은 사회적 연대이며, 시민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시와 공동체로부터의 지원을 인지하며, 시와 공동체가 소외 계층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
    - 스콧 맥킨(Scott McKeen) 시의원

## 주요 프로그램

- 도시민 소외와 정신건강 개선 운동, ‘Hello, Let’s Eat!’
  - 낯선 이웃 주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대



[그림 1] 낯선 지역주민과 함께 식사 중인 모습

- 행사 대여 및 주최 전문 지역기업인 'River City Events'와 에드먼턴시의 도시 농업 전략팀이 제휴하여 2018년부터 시범 시행
  - 첫해에 19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두 돌을 맞음
-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 에드먼턴 시민이 주관 단체에 신청하면, 무료로 식기류와 돛자리 등을 대여
  - 제공 물품은 접시, 그릇, 주전자, 수저, 플레이트 매트(Place Mat)이며 최대 24명의 모임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규모
- 사회적 고립을 막는 '버디 벤치'
  - 주변 시민이 버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고 대화를 걸어주는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제작
    - 어린이들이 학교에 있던 버디 벤치를 시 전체로 확대하기를 제안하면서 시작
  - 1년 내내 많은 사람이 앉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림과 디자인으로 제작
    - 시민단체 'Age Friendly Edmonton'과 연계해 모든 나이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
  - 2017년 6월 27일 시범 프로젝트로 최초의 버디 벤치를 시내에 배치
    - 총 15곳에 설치된 벤치는 시의 오픈데이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시정부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시민에게 버디 벤치에 사연과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중
- 불편한 디자인과 예산 문제로 실효성 논란
  - 일반 버스정류소에 사용되는 의자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불편하다는 지적
  - 33,000캐나다달러(3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 공영 운수회사(Edmonton Transit Service)의 기증으로 설치
  - 민간협회에서 독자적으로 U자 형태의 마주 보는 의자를 제작하거나, 학생들이 버디 벤치를 직접 제작하며 연대감을 높인 사례도 있음

<https://connectingedmontonseniors.ca/hello-lets-eat/>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for\\_communities/buddy-benches.aspx](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for_communities/buddy-benches.aspx)

[https://edmontonquotient.com/2017/10/09/edmontons-benches-you-wont-sit-on/?doing\\_wp\\_cron=1564639739.2433249950408935546875](https://edmontonquotient.com/2017/10/09/edmontons-benches-you-wont-sit-on/?doing_wp_cron=1564639739.2433249950408935546875)

<https://edmontonjournal.com/life/food/hello-lets-eat-invites-neighbours-to-become-friends-through-community-meal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 “여성은 하늘의 절반” 양성평등 고용문화 추구

중국 베이징시 / 사회·복지

중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경제 기여도가 높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평등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 베이징시는 이에 맞춰 채용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대책을 마련

## 배경

- 중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위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의 비율도 매우 높음
  - 중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보다 높으며, 중국 여성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sup>1)</sup>
  - 신 중국 성립 후 마오쩌둥은 ‘하늘의 반쪽은 여성이 떠받친다’(婦女頂半邊天)고 강조하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당시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국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성화
- 뉴욕 워크 라이프 정책센터(Centre for Work Life Policy)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야망이 큰 여성이며, 76%가 고위직 진출을 희망
- 여성을 ‘하늘의 절반’이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 중국의 가임기 여성 10명 중 8명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여성 10명 중 9명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정부는 여성의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 해결과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
  - ‘직장 내 성차별적 대우 해소와 양성평등한 취업 촉진을 위한 채용행위 규범화와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招聘行为促进妇女就业的通知) 발표
  - 2019년 2월 2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

1) 2018년 3월 7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2017년 여성, 직업과 행복감: 디지털 시대 여성 직장인의 영향력 보고’(2017 女性、职业与幸福感: 数字时代女性职场影响力报告)

- 시정부는 이런 통지에 근거하면서도 베이징시의 실정을 고려한 여성의 평등한 취업 권리를 보장하는 별도의 통지를 발표
  - ‘채용행위 관리 강화로 여성취업을 한층 더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招聘活动管理促进妇女就业工作的通知)

## 주요 내용

### ○ 채용행위의 규범화

- 채용 공고에 지원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할 수 없음
  - 단, 국가 규정상 여성의 취업이 금지된 직종은 제외
- 채용 시 특정성별을 우대할 수 없고, 성별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 전형 과정에서 여성에게 결혼 여부나 육아상황을 질문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건강검진 항목에 임신테스트를 포함할 수 없고, 출산을 채용 제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음
- 남녀 모두에게 같은 채용기준을 적용해야 함
- 국유기업 등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

### ○ 여성의 취업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

-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촉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의 운영을 강화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
- 출산보험 제도를 완비하여 출산보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구(区)의 각 부문(部门)에서 여대생에게 개별 맞춤형 취업 지도·알선 제공
- 기업이 출산 휴가 후 복직한 여성 직원에게 기술 향상훈련을 제공하도록 장려
- 여성과 고용인 사이에 노동쟁의 중재 신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 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채용박람회 순찰제도를 구축
  - 기업이나 인재중개기구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행위를 자행한 기업의 행위를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연합약담(约谈)<sup>2)</sup> 업무 시스템의 설립을 추진
  -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여성연합회(联和), 노동조합총연합회(总工会)가 연대해 시(市)급 약담업무 시스템을 설립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담화나 대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화해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

2) 행정부에서 일부 사안의 당사자를 불러 담화를 하는 것

- 사법구제시스템을 완비
  - 조건이 완비된 구는 여성권익조정중재재판소를 설립해 취업 관련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률원조(法律援助)를 제공
- 채용 과정 중 발생한 성차별적 행위의 처벌
  - 기업 및 인재중개서비스기구가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채용공고를 낼 때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1만~5만 위안(170만~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특히, 위반 행위가 심각한 인재중개서비스기구는 인재중개서비스기구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업이나 인재중개서비스기구가 성차별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를 인력자원시장의 신용기록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상실 징계를 시행

## 기업과 시민의 의견

- 현실적으로는 성차별적 채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더라도, 결국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이므로 특정성별을 우대하는 채용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기업이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 여부나 출산 상황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가정상황을 질문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중국에서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对策)이라는 말이 자주 통용되는데 이는 상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뜻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기업을 통제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
-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으므로,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정부가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세제감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기업이 여성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

-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인식개선 필요
  - 베이징시의 이번 통지는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채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권의 향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임은 분명



- 다만, 여성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기업 규제만으로는 여성채용 기피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뒷받침해줄 필요
-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고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용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도 중요하겠지만, 직장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거나 탄력근무제 등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

[http://www.cgbha.com/job/article\\_4112.html](http://www.cgbha.com/job/article_4112.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26178998609073412&wfr=spider&for=pc>

[http://www.cgbha.com/job/article\\_4112.html](http://www.cgbha.com/job/article_4112.html)

<https://www.wdiz.com/hjzs/ptsj/20180127/525635-1.html>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 극심한 대기오염 대처 ‘청정대기 2030’ 로드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환경·안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최근 세계에서 2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기 오염 문제가 극심해지자,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행정령을 제정함. 또한, ‘청정대기 2030’ 로드맵을 수립하고 노후차량 운행금지, 차량 2부제 확대시행 등의 14개 세부 행동계획을 발표

## 배경

- 최근 조사에서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도시로 ‘매우 유해함’(very unhealthy) 평가를 받음<sup>1)</sup>
  -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에 따르면 2018년 1년 중 250일이 대기질이 ‘유해한’ 것으로 기록
  - 자체 개발한 대기질지수(AQI)는 162이며, 초미세먼지(PM 2.5)의 농도는  $68.1\mu\text{g}/\text{m}^3$ 로 나타남
- 자카르타 환경국의 자료에 따르면 육상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대기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자 및 직무유기자로 대통령, 보건부, 환경산림부, 내무부,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자바 주지사, 반텐 주지사를 꼽고 지난 7월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 주요 내용

- 자카르타 도시교통계획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14개 주요 활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대기질 관리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9년 66호」를 8월 1일 제정
  -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을 현행  $65\mu\text{g}/\text{m}^3$ 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5\mu\text{g}/\text{m}^3$  수준으로 낮추고, ‘자카르타 청정 대기 2030’(Jakarta Clean Air 2030) 로드맵 수립

1) 스위스 소재 대기오염 전문 조사기관 AirVisual의 최근 7월 보고

- 자카르타 청정대기 2030 로드맵의 달성을 위해 교통·도시계획 부문의 구체적 활동 계획 14개 제시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인 트랜스자카르타와 올해 완공·도입된 고속전철(MRT), 경전철(LRT)의 이용 장려, 전기버스 도입 검토
    - 전기버스 도입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만, 현재 시범운영 및 안전성·성능 검사 단계에 있어 면허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교통부의 법적 보완이 필요
  - 건기에 차량2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기차량에 2부제 제외 인센티브를 제공
  -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배출기준이 양호한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유도
    - 대중교통에선 2020년부터 노후차량과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신규 교체
    - 민간차량을 대상으로는 6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25년부터 운행 전면금지 조례를 준비 중이지만, 주요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
  - 2020년까지 주정부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 현재 'e-Uji Emisi'(인도네시아어로 배출가스 검사를 뜻함)라는 앱을 개발하여 손쉽게 가장 가까운 검사장 검색, 검사결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연결이 편리한 구역 등의 도심 내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도입하여 자가용 이용 억제를 계획 중

[표 1] 자카르타 청정대기 2030의 14개 활동계획

1. 개선된 대기질 측정 및 모니터링	8. 자전거·전기스쿠터 이용 권장
2. 차량 배출가스 검사 강화	9. 더 많은 녹지공간 조성
3.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10.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되는 인프라 강화
4.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개발	11. 산업활동 내 대기질 관리 강화
5. 환경친화적 연료 공급	12. 대기질 관련 규정 개정
6. 차 없는 구역·거리 조성	13. 녹색 건물 개발
7. 교통공학관리 강화	14.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 강화

- 교통 부문 외에, 가정용 쓰레기 소각 금지, 쓰레기은행 이용 장려(※ 443호 참고), 도시 수경농업 홍보 등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추진
-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 등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한편, 더 적극적 대책을 주문
  - 주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에 환영을 표하는 한편, 더 과학적이고 주기적인 대기 오염원 조사, 중앙정부와 협력해 1999년에 수립된 대기오염 국가기준 강화, 서부 자바주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을 요청



[그림 1] 자카르타주 대기질 개선계획 주요 내용

<https://jakartaglobe.id/context/jakarta-air-quality-among-worlds-worst>

<https://en.tempo.co/read/1231291/airvisual-jakarta-with-2nd-worst-air-quality-friday-morning>

<https://metro.tempo.co/read/1231319/perbaiki-kualitas-udara-jakarta-dki-buat-14-rencana-kegiatan-ini>

<https://smartcity.jakarta.go.id/blog/447/small-steps-big-impact-ways-to-reduce-pollution-in-jakarta>

<http://www.beritajakarta.id/read/70850/terbitkan-ingub-pemprov-dki-siapkan-7-inisiatif-pengendalian-kualitas-udara#.XUUmzCplvPxt>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8/03/13553591/soal-instruksi-anies-atasi-polusi-udara-jakarta-ini-tanggapan-greenpeace?page=all>

<https://jakartaglobe.id/context/jakarta-to-fight-air-pollution-by-raising-parking-fees-extending-oddeven-license-plate-rule>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90719235523-20-413842/kurangi-polusi-bus-listrik-transjakarta-butuh-landasan-hukum>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08/02/no-city-for-old-cars-jakarta-plans-drastic-measures-to-clear-choking-smog.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9/06/29/jakartas-enemy-is-air-pollution.html>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 시·시민·사업자 연계한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

일본 오사카시 / 환경·안전

일본 오사카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선진도시와 3R(Reduce, Reuse, Recycle)을 바탕으로 한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업자와 연계한 새로운 페트병 회수·재활용 시스템을 도입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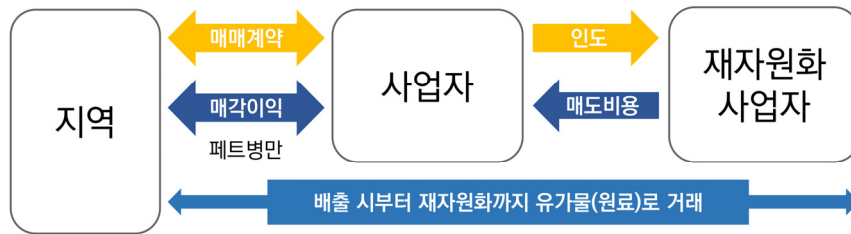
- 2019년 1월 28일 '오사카 플라스틱 제로 선언' 공표
  - 오사카의 페트병 생산량과 회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시의 페트병 회수량은 7,127톤에 달함
  - 이러한 배경에서 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선진도시와 3R의 적극적 추진 등을 바탕으로 한 플라스틱 제로 목표 추구를 선언
- 플라스틱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시민이나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이에 시는 플라스틱(페트병) 자원순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업자와 연계한 새로운 페트병 회수·재활용 시스템 '모두 연결하는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みんなでつなげるペットボトル循環プロジェクト)를 시행

### 프로젝트 개요

- 시는 페트병이 법률상 캔, 병, 종이류, 의류처럼 '오로지 재생이용 목적이 되는 일반 폐기물'이 아니므로<sup>1)</sup> 기존의 커뮤니티 회수나 자원집단회수의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페트병만을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함
  - 커뮤니티 회수는 ① 지역활동협의회 등 지역단체(회수주체)가 ② 초등학교 구(小学校区) 등의 일정 범위 내에서 ③ 종이류나 의류(대상품목)를 ④ 오사카시 대신 회수하면, ⑤ 시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 자원집단회수는 시정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시 회수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① 지역단체(회수주체)가 ② 10곳 이상의 배출세대로 구성된 주민단체의 ③ 종이류나 의류 등 재생자원물 중 1품목 이상을 회수하면 ④ 시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1) 일본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 새로운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을 지역과 새로 모집한 참가 사업자가 연계·협동하여 회수하는 것
  - 페트병에 관한 새로운 커뮤니티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에 이익을 제공하고, 시민의 분리배출 의식을 한층 높여 쓰레기 감량·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



[그림 1] 새로운 페트병 회수·재활용 시스템

- 사업자가 지역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단체의 활동 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배출하는 페트병을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행정회수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회수
- 회수한 페트병을 사업자 자신이나 페트병 등록재생처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일본 국내에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더 효과적으로 함
- 기존의 커뮤니티 회수와 차이는 ① 시가 중심이 되는 자원 쓰레기 회수 체계도 유지하면서 ② 시의 장려금 지급 없이 ③ 사업자가 회수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 효과

- 철저한 분리배출 실현으로 질 높은 페트병을 회수해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촉진
  - 시는 정부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폐기물 판단 요소를 물건의 성질과 상태, 배출 상황, 통상의 취급형태, 거래가격 유무, 점유자의 의사로 정리하고, 프로젝트에서 취급하는 페트병을 폐기물이 아닌 유가물로 취급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461711.html#01>

<https://www.city.osaka.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461/461711/setumeikai3.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 에너지 절약·저소득층 지원 결합 ‘냉장고 보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 환경·안전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많은 냉장고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최대 220유로(286,000원)를 지원하는 ‘냉장고 보너스’ 제도를 올 여름에도 시행

### 배경

- 그린시티 프랑크푸르트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절반 줄이기 목표 추진 중
  -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건물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며, 2010년 기준 1년 전 기소비량(22,600GWh)이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 수준
  - ‘기후보호 100% 마스터플랜’을 2013년부터 실행
    -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반으로 줄이기, 가정집에서 회사·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비롯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정책 다양
-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 등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의 교체를 지원
  - 특히 냉장고는 여름이면 최대치로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 신제품으로 교체 시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 기대
    -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등급은 A-B-C-D로 구분했지만, 2003년에 사실상 대부분 제품이 A등급에 도달한 이후 추가로 A+++등급(A급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60~70% 절감)까지 만들어진 상태

### 주요 내용

- 저소득층·사회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냉장고·냉동고를 에너지효율 A+++등급 제품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2014년부터 시행했으며, 6년간 총 577가구가 수혜
  - 전기절약 효과 누적량 최소 20만kWh(절약 전기세 10만 유로(1억 3천만 원))
  - 환경부 장관 로즈마리 하일리히의 발언에 따르면, 다른 도시도 프랑크푸르트 모델 활용

#### ○ 지원자격

- 실업연금 1년 이상 수혜자, 사회원조금, 주거지 보조금, 자녀 양육보조금 수혜자
- 프랑크푸르트 패스 사용자
  -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 무료로 발급되는 카드이며, 시의 시설 이용 시 할인·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912유로(120만 원) 이하, 2인 가구 1,181유로(150만 원) 이하 등
  - 이 패스를 소지한 사람은 시에서 검증한 복지정책 수혜대상이라는 의미

#### ○ 대상 제품과 절차

-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냉동고이며, 새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 A+++ 이상인 제품으로 교체 후 전기사용량을 연간 200KWh 이상 절약할 수 있어야 함
- 가톨릭 사회재단 카리타스가 관련 상담과 실무를 담당
  - 상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교체 대상 제품의 전기사용량을 직접 측정 후 지원
  - 필요시 40유로(52,000원) 상당의 에너지절약 상품(LED전구, 절수형 샤워꼭지 등) 선물
- 지원 내역: 가구당 최대 220유로
  - 연방 환경부가 100유로(13만 원)를 지원하며, 카리타스 측을 통해 상품권 형태로 전달
  -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최대 120유로(156,000원, 신제품 구입비의 ½) 지원
- A+++ 등급 냉장고는 제품에 따라 2,000유로(286만 원)를 넘기도 하지만, 저렴한 모델(Bomann KG322)은 246.66~422유로(32만~55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
- 구제품의 운반과 폐기 비용은 시가 부담

#### ○ 정책구성의 의미

- 구성: 에너지 절약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결합
- 재정: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
- 수혜 대상: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이미 검증된 대상
- 집행과정: 에너지국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협력

[https://frankfurt.de/sixcms/media.php/738/161209\\_Masterplan%20Brosch%C3%BCre%20Final\\_web\\_bf\\_pdfua.pdf](https://frankfurt.de/sixcms/media.php/738/161209_Masterplan%20Brosch%C3%BCre%20Final_web_bf_pdfua.pdf)

<http://www.energiesparende-geraete.de/energieeffizienzklassen/>

[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076&ffmpar\[\\_id\\_inhalt\]=35752890](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076&ffmpar[_id_inhalt]=35752890)

<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977>

---

이 은 희 통신원, hanytrans@gmail.com



## ‘청년·노인’ 저소득층 ‘투트랙’ 임대주택 보급

미국 하와이주 / 도시계획·주택

미국 하와이주는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노인 세대의 1~2인 가구를 위해 노후 건축물을 매입 후 재건축해 싼값에 재임대해주는 ‘투트랙’ 임대주택 정책을 현지 부동산 업체와 협력해 제공하는 중

### 배경

- 평균소득이 높지만, 물가·주거비도 비싼 하와이주
  - 호놀룰루시의 저소득층 인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6만 7,500달러(8,100만 원) 이하
    - 이는 비록 하와이주의 평균임금이 미 전역에 비해 5% 이상 높지만, 비싼 물가와 임대료로 고통받는 주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 현지 부동산 전문가 스테파니 소포스(Stephany Sofos)는 이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생활과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소득수준이지만, 주민에게는 하와이에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파라다이스 비용’”이라고 평가
  - 호놀룰루시는 이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시정부 주택지원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장가격보다 싼값에 임대주택을 제공 중
    - 하지만, 그 기준치도 지난해(6만 5,350달러(7,842만 원)) 대비 3.3%, 2017년(5만 8,600달러(7,032만 원)) 대비로는 무려 11.5% 증가한 수치

### 주요 내용

-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노후 건축물 매입·재건축 후 청년·노인 세대 대상으로 재임대
  - 주정부와 현지 부동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
  - 20~30대 청년과 63세 이상 노인 가구 중 1~2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대상
- 호놀룰루시 마키키(Makiki) 지역에 청년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운영
  -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20~30대 청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
    - 원룸 또는 방 1개가 있는 소형 주택으로, 임대료는 만기 5년 기준 월 500~800달러(60만~96만 원) 수준(최대 26년 거주 가능)

- 모일리(Moiliili) 일대의 중대형 아파트를 활용해 노인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제공
  - 노인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신청 기준은 63세 이상의 1~2인 가구 중 연소득이 1인 가구 4만 9,000달러(5,880만 원), 2인 가구 5만 5,980달러(6,718만 원) 이하인 가구
    - 임대료는 월 400달러(48만 원) 수준이고, 기본 2년 만기에 20년까지 연장 가능
- 주정부는 사업 담당 부동산업체에 임대주택 한 채당 월평균 1,135달러(136만 원)의 보조금 지급
  - 2개 부동산업체는 부동산 매입에 약 925만 달러(111억 원)를 사용했고, 하와이 주택 금융개발회사에서 1,500만 달러(180억 원)를 투자받아 재건축을 진행
    - 대상 건축물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이었지만, 재건축 후 45년간 위험 요소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음
- 청년·노인 등 세대별로 저소득층 1~2인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그림 1] 하와이주 저소득층 1~2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좌: 마키키 지역의 청년 임대주택, 우: 모일리 지역의 노인 임대주택)

<https://thebrattonteam.com/wp-content/uploads/2019/04/Low-Income-Status-Extended-for-Senior-Housing.pdf>

<https://www.staradvertiser.com/2019/04/18/hawaii-news/low-income-status-extended-for-senior-housing/>

<https://www.staradvertiser.com/2019/05/28/hawaii-news/newswatch/low-income-threshold-rises-to-67500-in-honolulu/>

<https://www.usposts.net/2019/04/low-income-status-extended-for-senior-housing/>

<https://www.seniorliving.org/hud-senior-housing-programs/>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 세계도시동향 제463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9월 2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